

• 마태복음 5:7, 43-45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라함’과 ‘헤세드’입니다.** ‘라함’은 ‘슬픔, 애통’이란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나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공감을 넘어 실제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할 때도 헤세드를 씁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마 5:7, 《메시지》 성경).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긍휼은 하나님과 관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돌보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긍휼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랑은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웃 사랑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면, 참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한 개,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관점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합니다. 창녀, 세리, 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긍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 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 ② 나는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긍휼을 베풀니까?